

‘꽃과 새가 어울린 자리’ 의재미술관서 봄 맛이

소장품전 첫 전시 4일~6월12일...화조화·기명절지화 등 전시 허백련 ‘춘풍’, 허행면 ‘사계군방도’, 허달재 ‘백매’ 등 60여점

무등산 자락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은 그림 감상 뿐 아니라,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하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넓게 트인 통창 너머로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풍광을 느낄 수 있고, 계절과 어울리는 작품을 만나는 기획전을 통해 행복한 문화나들이도 할 수 있다.

의재미술관은 지난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재개관 기념전이었던 ‘문향(문향·인연의 향기를 듣다)’전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의재미술관은 올해 세 차례 소장품전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난다. 첫 전시는 꽃과 새를 주제로 봄을 알리는 기획전을 개최하며 여름에 시작하는 두 번째 전시에서는 산과 물이 있는 산수화 작품을 선보인다. 가을 전시는 서예와 사군자 등 선비의 고상한 취미를 주제로 기획했다.



허백련 작 '춘풍'

4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열리는 첫 기획전의 주제는 ‘꽃과 새가 어울린 자리’다. 전시에서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화조화(花鳥畫)와 기명절지화(器名節枝畵)를 만날 수 있다. 그림 속 꽃향기와 새소리를 벗삼아 미술관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가기 좋은 기획이다.

전시에는 의재 허백련(1891-1977)의 작품을 비롯해 허백련의 제자이자 동생인 목재 허행면(1906-1964), 장손자인 작현 허달재의 작품 등 총 60여점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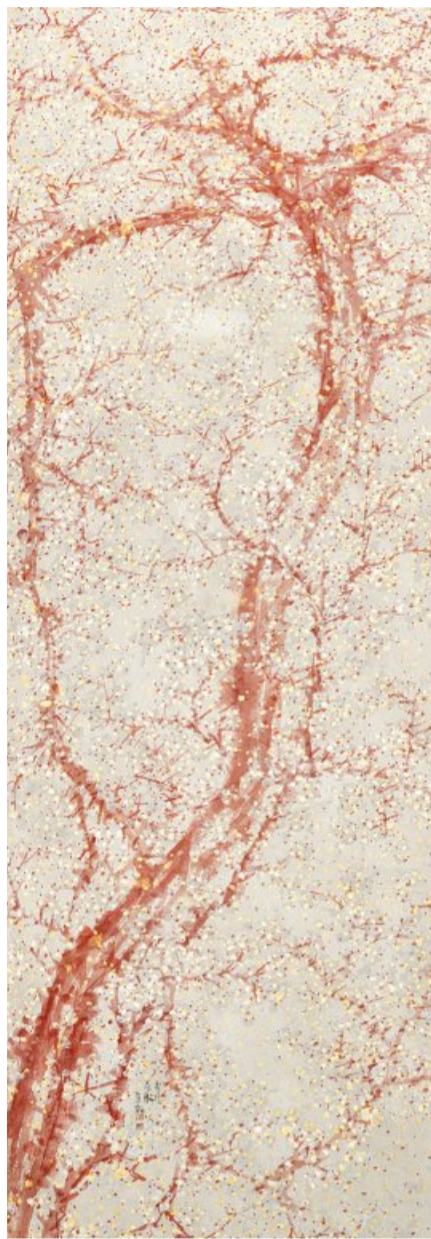
허백련의 화조화나 기명절지화는 다루는 소재의 폭이 매우 넓을 뿐 아니라 각각의 표현방식이나 색감도 개성이 있고 깊이와 운치가 있다. 허행면의 꽃그림은 소재는 의재와 비슷하나 사실성에 바탕을 둔 자유로움이 있으며, 허달재의 작품은 전통을 현대화하여 기품이 있으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계절이나 자연의 일부를 표현하고 각각에 상서로운 의미를 담은 ‘화조화(花鳥畵)’는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공간을 풍요롭게 꾸며왔다. 허백련과 제자들의 작품 중에는 매화, 모란, 연, 수선 등 문인들이 좋아하는 식물들과 여러 새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그들은 그림과 함께 소재가 갖는 상징성을 드러내는 화제(畵題)를 함께 써 의미를 더했다.

허백련의 작품 ‘춘풍’은 매화꽃과 한 마리의 새가 등장하는 소박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며 허행면의 ‘사계군방도’는 화면을 가득 채운 다양한 꽃들의 향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허달재의 ‘백매’ 시리즈는 흐드러지게 핀 매화의 자세를 아련하고 몽환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기명절지화(器名節枝畵)’는 여러 기물을 통해 현실에서 추구하는 바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실용화이자 장식화다. 의재의 기명절지화에는 그가 좋아하는 기물들이 한 화면에 담겨 있다. 평생 삶의 지표로 삼았던 동양의 경전을 쓴 두루마리, 즐겨 마셨던 차를 끓이는 화로나 차 주전자 외에 난, 수선화 같은 절지화, 포도, 감, 밤과 같은 과실류 등이 적절히 배치돼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허달재 작 '백매'



발레로 피어나는 ‘봄’

광주시립발레단, 11~12일 문예회관...미디어아트 영상도

광주시립발레단의 올해 첫 정기공연 ‘Voice of Spring’이 11~12일(오후 3시·7시·30분) 2일간 4회에 걸쳐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새로 취임한 박경숙 예술감독이 총 연출을 맡은 ‘Voice of Spring’은 발레에 진시영 작가의 미디어 아트 영상이 더해진 작품으로 여섯개 파트로 구성됐다.

공연은 생동감 있는 춤과 싱그러운 음악으로 봄을 알리는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그랑 왈츠’로 막을 올린다.

이어지는 ‘샘물’은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가곡 중의 하나로 러시아 불쇼이발레단의 안무가인 아사프 메세르가 창작한 2인무 작품이며, ‘겐자노의 꽃 축제’는 ‘라 실피드’를 안무한 부르농빌의 작품으로 18세기 이

탈리아를 배경으로 ‘로자’와 ‘파올로’ 두 주인공의 사랑이야기를 다룬다.

또 베니스에서 열리는 수상축제 가장무도회에서 만난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의상과 화려한 춤을 만날 수 있는 ‘베니스 카니발’,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에 빠지지 않는 무도회 풍경을 모티브로 한 ‘봄의 소리’ 등도 펼쳐진다.

마지막 ‘탈리스만 그랑 파드되’는 샤프테 테르부르크 황실극장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바람의 신 바유와 부처 탈리스만을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다. 남자 무용수의 뛰어난 기량과 끊임 없이 흐르듯 이어지는 춤 선이 돋보인다. R석 1만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문의 062-522-8716.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서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조계종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20주년 ‘부모와 함께’·‘스무살 맞이’ 등 운영

템플스테이는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사찰에서 참선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힐링을 하는 시간이다. OECD가 선정 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문화상품’으로 꼽힐 만큼 지명도가 높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파란 눈의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사찰의 아름다움과 고즈넉함, 여백의 깊이를 선사했다.

템플스테이는 현재 전국의 사찰 143곳에서 운영할 만큼 보편화됐다. 지난 2021년 12월 기준 템플스테이 체험인원이 600만 명을 넘었다. 그만큼 템플스테이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박자 쉬는’ 여유를 갖게 한다. 지역에서도 해남 대흥사를 비롯해 광주 중심사,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찰마다 ‘체험형’, ‘휴식형’ 등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일상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힐링을 준다.

조계종 문화사업단은 올해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는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가족간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라떼 템플스테이’, 스무살을 맞은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스무살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등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험 브랜드로 도약한 만큼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도 펼친다. 아동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 외에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이들을 위해 ‘마음 더하기 템플스테이’를 무료진행 및 할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했던 ‘도락도락 템플스테이’ 등 사회공익, 나눔템플스테이



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미래 가치를 찾기 위한 사업도 펼친다. 일명 ‘20주년 성과발전방향연구’ 사업이 그것으로, 지난 20년 현황과 성과를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방향성,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문화관광복지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건강자유효과’ 연구도 진행한다.

이밖에 문화사업단은 모두가 참여 가능한 온라인 ‘대국민 공모전’, 20년을 조명하는 ‘템플스테이 스무살 축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템플스테이는 바쁜 일상을 떠나 사찰에서 참선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힐링과 여유를 갖는 시간이다. 광주 중심사의 템플스테이 장면.

장현경 초대전, 30일까지 고흥 도화헌미술관

‘추상으로 풀어낸 집의 기억.’ 고흥반도 끝자락 도화헌미술관(관장 박성환)이 오는 30일까지 서양화가 장현경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장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living memories’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유년 시절의 다양한 기억들을 ‘집’이라는 모티브에 담아낸 작품들로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한 추상으로 풀어낸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고향과 향수, 어릴 적 추억과 그리움, 가족은 언제나 작가의 삶과 함께였다. 그는 이런 기억들을 집이라는 모티브로 구현하고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촘촘히 기록했다.

장 작가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 공간의 이분화, 잘게 쪼개진 색면집합이라는 뚜렷한 세가지 특징을 보인다. 특히 빨강, 파랑, 노랑, 흰색, 회색 등 강렬한 색감과 화면이 만들어내는 리듬감이 눈에 띈다.

비구상으로 표현해낸 화면은 거칠고 대담한 붓질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장 작가는 인사아트센터 등에서 1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내외 아트페어 등 250여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living memories’

전남문화재단 ‘아트쉐어링’ 4월 20일까지 작품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하 ‘재단’)은 코로나불투명극복과 일상의 희망을 전하고자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아트쉐어링’에 참여한 전남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공모한다.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아트쉐어링’은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임대하거나 기획전시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술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임대에 따른 수익을 작가에게 전액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2월 22일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장애예술가

의 작품은 우대한다. 모집부문의 시각예술 전 분야로 회화, 입체, 설치 등 제한이 없으나 평면작품의 경우 50초 이상인 작품만 신청 가능하다. 응모신청은 4월 20일까지다.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에 상관없이 작품을 수시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군부대, 병원, 복지기관 등 공공시설에 찾아가는 기획전시를 열어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9월 중 광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에서 홍보 기획전 시도 가질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불교종단협의회, 국보 불교유산 소개 ‘정보’ 발간

대한불교종단협의회는 국보로 지정된 불교 문화유산 이야기를 담은 도록 ‘성보(聖寶)’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도록은 국보마다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고, 시대별 불교미술의 변화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본 도록은 영문과 국문을 함께 실어 내국인과 외국인 독자가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사찰

을 직접 방문하거나 박물관 특별전에서만 만나 볼 수 있었던 각 시대의 문화예술 최고 경지인 ‘국보 문화재’를 한 권으로 정리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30개 불교 종단을 회원으로 둔 협의회는 그간 한국불교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단행본을 기획해 발간하고 수행문화, 불교문화재, 선사·사찰·미술 등 한국 불교문화를 적극 알리었다.

/연합뉴스

